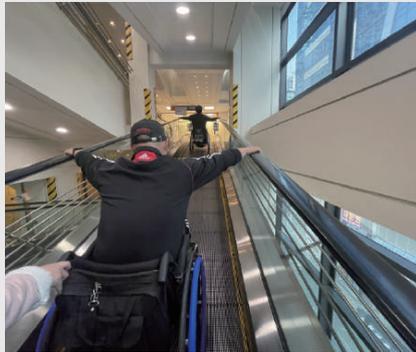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2.11

미션
MISSION

사랑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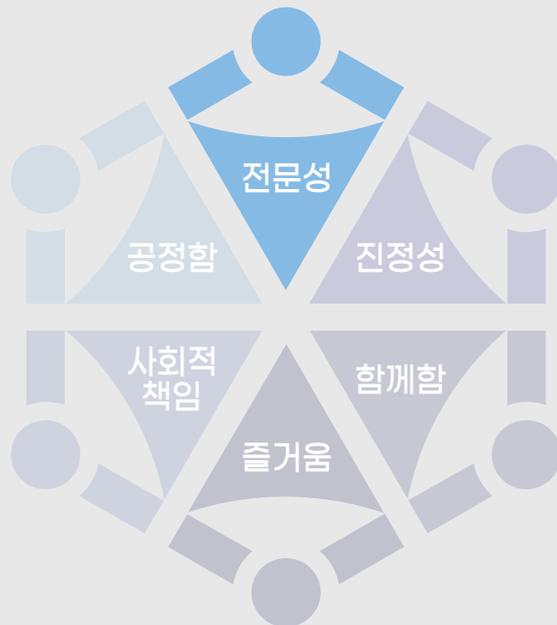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병원의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갑상선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에 대한
 강의에 우리병원이
 초대되었고,
 치료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었던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은
 자리였습니다.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학술대회 (11.19) 갑상선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 강의

지난 11월 19일(토)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초대되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국내에서 갑상선 수술에 있어 독보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신 주요병원의 선생님들이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이화여대, 건양대, 양산부산대, 고신대 등 국내 주요 병원 교수님들과 매향서울의원, 조아유외과 그리고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갑상선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주파 치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갑상선암 수술 권위자분들과 함께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과 고주파열치료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며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원에서는 지난 14년 6개월간 시술해 온 587명의 갑상선유두암 환자분, 804개의 갑상선유두암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본원에서 시행한 치료사례에 기반한 치료방법과, 치료결과에 대한 통계를 통해서 갑상선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3월에 유럽에서 위험도가 낮은 갑상선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이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인정이 되었고 치료적응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갑상선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은 꾸준히 높은 치료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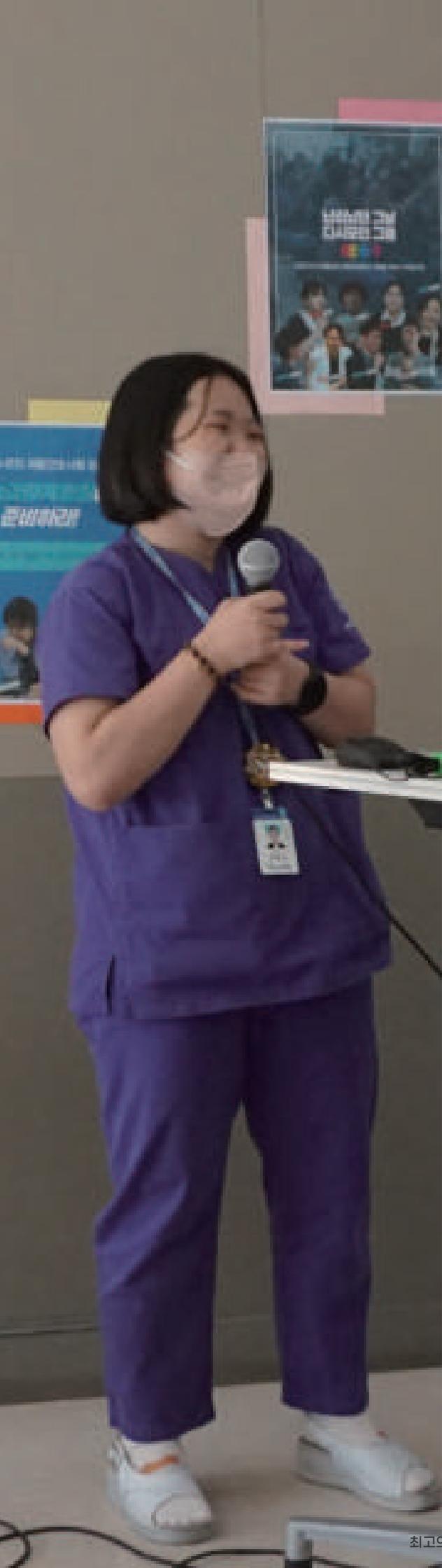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병원의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은 갑상선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에 대한 강의에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초대되었고, 치료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점에서 저희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은 자리였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분에게 최선일 수 있는 치료가 고주파열치료술로 결정이 되면 최고의 치료결과를 만들어감으로서, 갑상선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이 근거에 기반한 공인된 치료방법중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재활간호 전문교육 (11.12)



생활치료센터(병동) 간호사, 조무사, 감염팀, QPS, 재활외래 선생님들과 함께 재활간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요일 9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 전문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오전 1부시간에는 간호팀장님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원장님말씀, 재활교육1,2,3를 진행했고, 오후 2부시간에는 9층 하늘공원에서 게임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활간호전문교육을 통해 모든 팀원이 소속감을 느끼고 동료애를 가졌으며, 가장 중요한 재활간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활코치팀과 함께하는 휠체어스쿨 (11/07, 11/21)



재활코치팀과 함께하는 휠체어스쿨은 척수장애인의 휠체어 스킬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7일 3회차에는 다양한 높이 경사를 안전하게 오르고 내려가기 훈련과 휠체어 구입시 알아야 할 점, 관리방법에 대해 실습 및 교육을 진행하였고, 21일 4회차에는 wheelie 기초과정과 낮은턱과 높은턱 넘기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사회복지제도 - 알기 쉬운 지역사회자원
사회사업팀 박선미 팀장 (11.05)



재활치료의 이해와 재활과정에서
중요한 생활관리
재활치료2팀 백영수 팀장 (11.12)



장애를 넘어 일상의 삶으로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조은호 강사 (11.26)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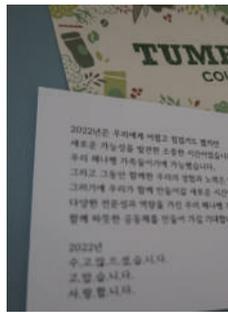


개원11주년 기념품 증정 (11.02)



11월 3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개원11주년 기념일 행사는 이태원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에 동참하고자 한달간 연기가 되었지만, 개원11주년 기념품 증정은 원래 일정에 맞춰 진행되어 전직원에게 나눠드렸습니다.

STANLEY® + STARBUCKS® 사랑은 봅니다





척수이야기
(11.14 / 11.28)

밖으로 한걸음씩
(11.01)
남부운전면허시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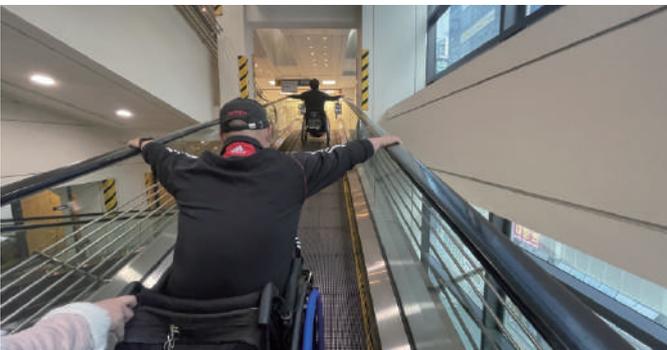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밖으로 한걸음씩
(11.21)
중동이마트

밖으로 한걸음씩
(11.26)
해운대해수욕장



우리는 가족입니다.

11월의 신규입사자



간호팀(5W) 손유진 간호사



영양팀 박보경 조리원



야간전담의 양돈규 진료과장



영양팀 손영지 조리원



재무팀 권예림 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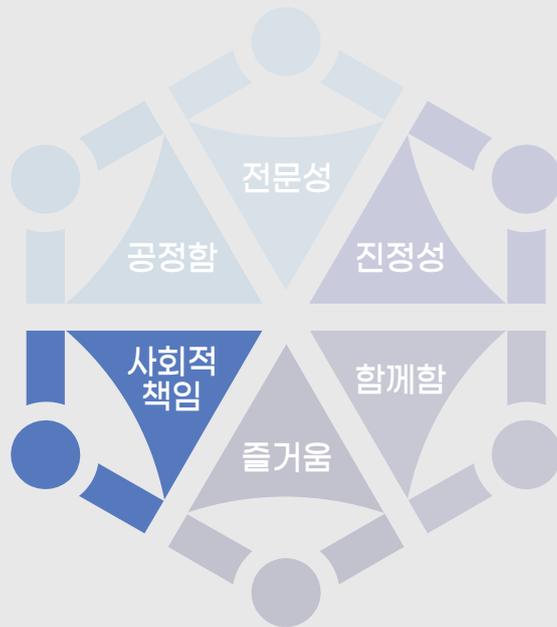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종 시 「방문객」 중 -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찾아가는 서비스 이미용프로그램 (11/22, 11/25)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하고 계신 동안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특정 기간에 사전예약 신청으로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미용프로그램은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자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참여자들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위생과 청결은 물론 기분전환을 느끼게 됩니다.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생일,

병원생활 이전에는
가족이 함께 했던
시간이었을텐데...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자를 위한 깜짝이벤트 '생일축하이벤트' (11월 중 실제 생일날)



병원생활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참여자+가족들이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주고자 입원시 음력, 양력중 실제 챙기는 날짜정보를 알고 실제 그 날 생신에 축하노래를 함께 부르며 촛불을 끄고, 가족들의 맘 또한 달래주고자 사진을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일상재활센터 그룹치료 프로그램
'석고 방향제 만들기'
(11.16)

이벤트 프로그램
겨울 차 만들기 프랑스식 감기약 뱅쇼
(11.24)



홍보팀장의 '브런치' 일곱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직장인은 아무거나 배우면 안되나요?

과정을 즐기십시오. 배우고 익히는 과정의 즐거움을.

지금의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이었다. 서로 직장의 거리도 다르고 출근시간도 달랐지만 우린 매일 아침 만나야 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십여 년도 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열정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서로 졸린 눈을 비비고 연신 하품을 할 뿐이다. 그저 새벽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근로자수강한급제도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나, 디자인 일을 했던 아내, 우리가 다닌 학원은 어이없게도 중국어 회화반이었다.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시간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중국어학원. 그럼에도 우리는 1년 가까운 시간을 다니고 있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삶에 대한 자신만의 각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이 될 수 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배운 것을 다시 파괴하는 용기가 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각도인 것이다. _이랑주《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샘터)

인생에서 자신만의 각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또한 배운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용기마저 필요하다. 배운 것이 무용지물이라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보면 이 중국어학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꽤나 쓸모없이 여겨지는 것들을 배우며 지냈던 거 같다. 단순히 직장-집-직장-집으로 끝내기엔 아쉬웠다. 게다가 매년 12월 한해를 돌아볼 때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 꼭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잘 보낸 것 같아 보였다. 그때 그랬다. 그것이 주위의 모든 만류와 웃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라도 배워야했던 이유였다. 어쩔 내안에 또 다른 배움에 대한 결핍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른다.

아는 세계에서 모르는 세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클로드 베르나르-

- 중국어 학원 (새벽반/주3회/약1년)
- 부동산 경·공매 과정 (저녁반/2개월)
- 인사·노무 실무 과정 (저녁반/2개월)
- 부동산 공인중개사 과정 (저녁반/2개월)
- POP 아트 전문가 과정 (저녁반/2개월)
- 보험청구심사과정 (저녁반/2개월)
- 포토샵·일러스트 기초과정 (저녁반/2개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문학과 3학년 편입/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제학과 3학년 편입 후 졸업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야간)
- 블로그마케팅 (주말반 1회)
- 유튜브마케팅·인스타그램마케팅 (저녁반/2회)
- 병원브랜딩교육 (저녁/8주과정/서울)
- 편집장과 함께 책쓰기 (저녁/1회)
- 세바시대학 글쓰기과정 수료 (4개월과정)

중국어에서 시작되었지만 정말 서로가 연관이 없는 다양한 분야를 배웠던 거 같다. 업무와 연관성이 깊은 분야도 있지만 중국어, 경매, 공인중개사, 국문학과, 경제학과 등 이런 분야는 정말 그야말로 호기심에 의해서 다녔다. 1년에 1개씩이라면 직장인 20년차니 20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아마 한 5년 전부터는 독서로 대신하고 있다며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야간에 다니는 경영대학원이다. 그 당시 나는 경제가 좋았고, 배움이 좋았던 거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 3살, 1살 된 두 아들이 있었고, 아내도 점점 독박육아에 지쳐갔다. 아버지도 중증으로 위중하셨다. 그렇다고 내가 가정과 병환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새벽출근길 병문안을 갔었고, 학교가지 않는 날엔 육아에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모두를 위해 한 학기 휴학을 했다. 덕분에 나는 이듬해 따뜻한 여름에 계절학기로 졸업할 수 있었고, 그 졸업기간에 경제학과에서 제일 좋은 성적으로 학위장을 대표로 수료 받았다. 두 아들 녀석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인 듯 연신 흐뭇해했었던 기억이 난다.

이 많은 것들에 대한 배움과 시간이 때론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라 얘기할 수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인 일들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내가 배운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다. 내 주위, 내 업무에 만족시킬만한 엄청난 변화도 없다. 하지만 중요한건 매순간 조금씩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내 삶은 결코 타인과 하는 경주가 아니다. 순간의 합이며 점들의 연속이고, 선과 면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독립적인 점들을 먼저 찍어야, 그 점들 사이를 이어주는 선이 생기고 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스펙을 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 즐거워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다 보니 스펙이 하나둘씩 쌓이도록 하세요.
과정의 즐거움이 빠지고 결과만 얻으려 하면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과정을 즐기십시오.
_헤민《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쌤앤파커스)

어쩔 수 없는 스펙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 즐거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즐거움으로 인해 내가 나에게 감동하는 삶을 살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어디에 누군지 모르는 당신,
우리 과정을 즐겨봅시다.



함께하는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즐거움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